

천만 돌파 '파묘' 오컬트 영화 신기원 장재현 감독의 전작 '사바하'도 뜬다

'파묘'의 세계관 구축하는 토대
OTT 플랫폼에서 역주행 인기
전국 극장가 27일부터 특별 상영

장재현 감독의 영화 '파묘'가 마침내 24일 오전 1천만 고지에 올랐다. 24일 오전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개봉 32일만에 '파묘' 누적 관객수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개봉한 영화로는 첫 '천만 영화'이며 역대 32번째다.

이와 맞물려 '파묘'의 오컬트적인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토대가 된 장 감독의 전작 '사바하' 등이 OTT 플랫폼에서 역주행하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전국 극장가에서 '장재현 감독 기획전' 일환으로 '사바하'가 27일부터 4월 2일까지 특별 상영될 예정이다. 전라권에서는 전주극사, 전주혁신메가박스 등에서 볼 수 있다. 작품은 신형 종교비리를 발굴하는 종교문제연구소 '박옥재(이정재 분)' 목사가 '사슴 동산'이라는 종교 단체를 파헤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불교 용어인 '사바하'는 '성취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피 흘릴 때 같이 울고 있는 자다"

'사바하'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느낌을 주는 대사다. 음습한 '그것'(이재인 분)이 나지막히 읊조리는 데 관객들의 귀에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불경한 형상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교의 손동작인 수인을 시연하자 일순 부처의 금빛 휘광마저 여보인다.

이윽고 '그것'은 손가락으로 불도의 바퀴를 굴리는 전법륜인(轉法輪印), 빈 손바닥을 드러내 근심을 파하는 시무외인(施無畏印)을 차례로 선보인다.

하나 자세히 본 '그것'에게서 드는 감정은 오히려 '외경심'. 시디르타가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는 순간을 상징화한 '항마축지인'을 행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오컬트적 분위기 속에서 '그것'이 설 파하는 진언들을 듣고 있으면 불도를 다 깨질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영화는 영월 터널에서 여중생이 사체로 발견되고, 이를 쫓던 경찰을 박목사가 사슴 동산에서 다시 마주치면서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든다. 의심은 꼬리를 물며, 점점 더 관객들은 공포 속으로 빠져든다. 전형적인 오컬트다.

일찍 보면 사이비 종교를 추적하는 사베시스터럼 일찌지만, '사바하'는 태극적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 이분법적 사유에 경종을 울린다.

탈에 뒤덮인 채로 쌍둥이의 다리를 뜯어 먹어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조차 박탈당한 '그것'은 악에 가까워 보인다. 이와 달리 불로영생하며 악한 자들 앞 '등불'을 자임하는 마복불 교제적 선의 얼굴을 지녔다.

선과 악의 우로보로스(연쇄)로 인해 영화에는



영화 '파묘'에서 얼굴에 경문을 수놓은 화림(김고은)이 불을 켜고 제의적 행위를 하는 모습.



'사바하'의 박 목사(이정재)는 '사슴 동산' 교단의 비밀을 파헤치던 도중, 더 큰 미스터리를 마주한다.

명정한 악도 정의도 없다. 모든 선악이 카르마(업)로 이어져 있기에, 어둠 속에서 실견한 '그것'은 음습한 뱀을 두른 악한 모습에도 정감할 진리를 논하고, 인간의 악한 마음을 선하게 위무한다.

영화 속 상징물 염소도 마찬가지다. 유럽에서는 악마의 상징으로 많이 인용되나, 불교 등에서는 경우에 따라 염소를 '선'으로 묘사한다.

맹자의 제자 공도자(公都子)가 "성은 선해질 수 있고 불선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던 것이나, 고자가 성무선악설을 위시하며 "인간의 본성이 선과 불선(不善)으로 나뉘어 있지 않은 것은 마치 불이 동서로 나뉘어 있지 않은 것과 같다"고 했던 명제들도 같은 의미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장재현 감독만의 '영화적 고집'은 이 같은 철학에 설득력을 더한다. 작중 감제석은 내충현파 스님에게 "천적이 태어난다"라는 예언을 듣고 1999년 태어난 여자 아이들을 모조리 죽인다. 이 같은 내용은 마태복음 2장 16절 '헤롯왕 이야기'에서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육이 이어졌던 데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 아닐까 싶

다. 부처 맹화나 대사 하나까지도 종교적 자문을 구한 뒤 촬영했다고 하는데 이런 심미적 집념과 탐구 의식은 '파묘'에서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을 다룬 장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두 작품이 서로 연계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까닭이다.

영화를 관통하는 질문은 "깨달음을 얻은 악"과 '번뇌에 빠진 선' 중에서 어떤 것이 진리인가"인 것 같다. 수많은 '야만'과 '사바하'를 외쳐도 신에게 닿지 않는 구원이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말미에서는 "저희의 울음과 탄식을 들어주소서"라는 박목사의 외침이 공허하게 울려 퍼진다. 신앙에 대해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초로 인정한 네메시오스나 선악 이원론, 절대선악을 부정한 아우구스티누스 등의 이들도 스쳐간다. 그러나 이들의 복잡다단한 사유를 '사바하'는 그저 영화적 기법 등으로 선명하게 형상화했다.

'사바하'는 현재 티빙, 시리즌, 웨비, 왓츠,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고창농악 전통예술학교 발표회'.

<고창농악보존회 제공>

부드럽고 우아한 '고창농악' 배워볼까

'2024 전통예술학교' 27일 첫 수업

'고창농악'은 전라도 고창, 영광 등지의 해안지대를 끼고 형성된 농악 유파 중 하나다. 호남 우도농악의 한 갈래로 소고놀이, 쇠가락과 뿔상모 및 손발짓의 활발함으로 '부드럽고 우아한 멋을 풍긴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고창농악전통예술학교가 '2024 전통예술학교' 첫 수업을 오는 27일 시작한다. 11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부터 진행하며 수강료 월 5만원.

이번 강좌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고창농악'을 고창농악전수관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총 다섯 개 반이 개

설되며 '판굿앞은반', '판굿선반', '고깔소고반', '통북놀이반', '상쇠반' 등 다양한 전통예술 분야 별로 수업이 열린다.

지난 2017년 시작한 전통예술학교는 매년 7~80여명 수강생을 배출해오고 있다. 종강 시 발표회도 진행.

구재연 고창농악보존회장은 "지역 전통문화예술인 '고창농악'을 통해 일상 속 신명을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며 "전통예술이 주는 치유, 고창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농악보존회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I PD까지 등장... AI에 빠진 방송가

AI가 연출한 'PD가 사라졌다!'

AI와 대화하는 '비인칭시점' 등

"패러다임 변화, 위기이자 기회"

뉴스를 진행하는 인공지능(AI) 앵커, 무대 위에서 팬들과 소통하는 AI 가수에 이어 이제는 AI PD까지 등장했다.

24일 방송가에 따르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최종회를 공개한 MBC 'PD가 사라졌다!'는 AI 기술로 만들어진 프로듀서 'M파고'가 MBC 입사 후 예능 PD가 되어 직접 프로그램을 연출한다는 컨셉으로 기획된 사회실험 프로젝트다.

M파고는 캐스팅부터 연출까지 직접 진행하며 한편의 서바이벌 예능 포맷을 만들어간다.

AI PD는 여느 서바이벌에서 보았던 게임과는 다른 독특한 게임들을 진행한다. '자기소개 피구 줄다리기', '지구력 얼음팽 개인전', '박수 웃놀이 슬래집기' 등 알 수 없는 미션을 쏟아낸다.

처음 보는 미션과 명확하지 않은 게임 진행 방식에 출연진은 하나둘씩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하지만, M파고는 아직 소통 능력과 융통성이 부족하다. 출연진을 달래는 대신 "프로그램 연출에 대한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다. 기권은 없다. 미션을 계속해 달라"고 단호하게 주문한다.

출연로 선정 기준도 여느 PD들과는 다르다. M파고는 촬영분을 실시간으로 편집하고, 등장한 분량에 따라 출연자의 출연료를 자동 지급한다.

'PD가 사라졌다!'를 기획한 최민근 PD는 "결에서 지켜본 결과 AI PD는 한계보다 잠재력이 크다



MBC 'PD가 사라졌다!'

고 느껴졌다"며 "아직 스크린 안에 갇혀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창의적인 기획 아이디어를 낼 줄 알고 학습과 진화 속도가 놀랄 만큼 빨랐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첫 방송을 한 KBS 2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이나의 비인칭시점'도 AI를 활용한 방송이다. 이 프로그램은 작사가인 김이나가 생성형 AI와 음성합성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AI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의과대학 임상 열풍부터 스토킹 살인 사건, 소극장 학전이 33년 만에 문을 닫게 된 이야기까지 대화 주제는 다양하다.

프로그램은 AI를 활용한 음성북원, 얼굴 디에이징(배우들을 실제보다 젊어 보이게 하는 특수효과) 기술, TTS(음성합성 기술 등을 통해 사람의 목소리를 구현해 내는 것)를 프로그램 곳곳에서 활용해 볼거리를 더한다.

방송가에서 AI의 영역 확대는 이미 시작됐고, 그 속도는 눈에 띄게 빠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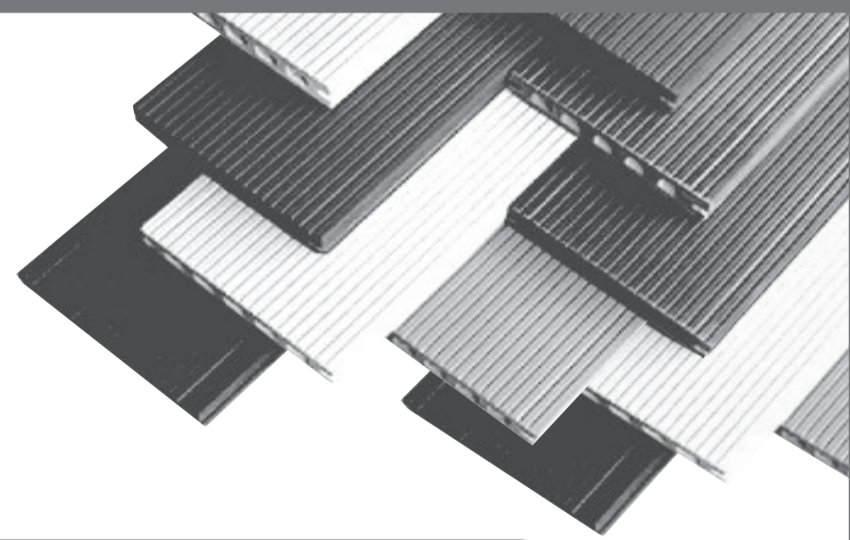
한 방송사 PD는 "AI로 인해 앞으로 방송가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이자 기회라고 보고 있다"며 "AI에 의존하는 창작자들과 AI를 활용할 줄 아는 소수의 창작자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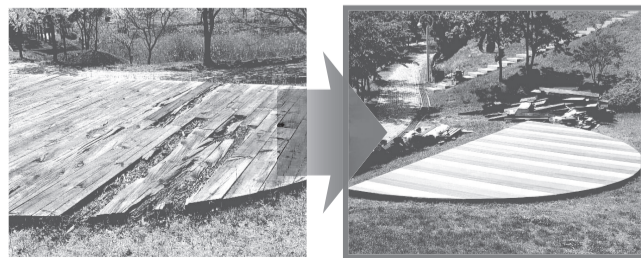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